

에리코 말라테스타 - 아나키스트는 자신의 원칙을 잊었다.

심장중의강철

순진하게, 이상적이게만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하겠다.

사회주의자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들일지라도 지금 이 전쟁, 이 유럽을 황폐화 시키는 전쟁에 박수를 보내고 독일이나 독일의 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음을 여기 털어놓겠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란 이들이 저들과 같은 것거리를 할 때 거기에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동지가 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현 상황은 '우리의 원칙'이 부도가 나고 부서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루 빨리 이를 다시 잡아야할 이유가 있다고 난 본다.

일반적으로 모든 '원칙'은 불충분하거나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과감히 수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때인가? 아니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은 원칙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온다.

우리의 원칙, 가장 기본적인 아나키스트의 원칙으로 돌아가야할 때이다.

나는 '평화주의자'따위가 아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인류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울 뿐이다.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욕망은 두 세력이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가 있다면 이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무장하여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

영원한 폭력에 거부하며 말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피억압자들이 '자위권'을 이유로 '억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며 필연적으로 전쟁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거룩한 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 전쟁은 내전과 같은 혁명적 인간 해방의 전쟁일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인간 해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날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나 '독일', 아니면 기타 정치적 이유나 '국가적' 이유를 고려하여 열망적이고 사명을 지닌 '민족주의적 전쟁'을 외치는 것을 보고있다, 부르주아 경쟁자들의 이익, 우리의 열망과 사명에 반하는 것, 이는 피억압자들이 자의식 없는 노동자들에게 어서 빨리 이 부당함을 깨닫고 우릴 죽여주소! 라는 의미로 하는거면 뭐 틀린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지배계급이 그렇냐는 것이다. 이 지배계급은 자신의 권력, 자신들의 편견과 사상을 보존하며 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종적 야망과 증오를 만들려하고 국가를 통해서 이를 행하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모든 억압과 착취를 끝내고 지배자와 노예, 착취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의식을 깨워 계급투쟁을 발전시키고

인종이나 국적의 편견을 깨부서 만국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서 투쟁하게하는 것이다!

이 것이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항상 모든 노동자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 동지들이며 우리의 적 '외국인'은 착취자들이라고 말한다, 저 착취자가 나와 가까운 곳에 태어났든 멀리 있는 곳에 태어났든 같은 언어를 쓰든 다른 언어를 쓰든 착취자일뿐이다.

우리들은 항상 저 착취자들에 반대하여 계급적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 친구들과, 동지들과 연대하였으며 결코 국적이나 인종따위를 근거로 삼질 않았다!

우린 항상 구체제의 유물과 싸웠고, 압제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들에 맞서 싸웠다! 우린 말뿐만이 아니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국제주의자임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느꼈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와 국가의 지배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우며 역겨운지를 우린 저들의 결과로서 옳았다고 느끼게되었다.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저들의 행태를 눈 먼 이들에게도 보여줘야한다고 우린 느꼈다! 그런 지금!

지금 각 국가의 사회주의자란 작자들이, 아나키스트란 작자들이 계급투쟁을 잊어버리고 부르주아와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있다니!

대체 국제주의와 인류애는 어디에 가버렸는가!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생각보다 국가적 정서가 더 살아있으며 국제주의가 덜 뿌리박힌 것 같다.

하나 이는 우리가 좀 더 반애국주의 선전을 강화해야할 때이며 국제주의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종교의 세가 더 썰고 영향력이 크다고 우리가 가톨릭 사제가 되어야하는가?

전염병, 천재지변, 야만인의 침공 등의 사건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은 맞다.

이 경우에는 계급투쟁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잊어버리고 공동의 위협에 맞서야하는 것은 맞다, 감옥에 지진이 발생할 때 간수가 잔해에 깔려 죽을 위험이 있다면

간수들은 감옥문을 연 채 범죄자들과 같이 그 깔린 간수를 구해야할 것이다, 허나 그 재앙 동안에 간수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자를 죽이려한다면 죄수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어야한다!

저 '외국인'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조국'을 '모든 인민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운다면 같이 싸우는 것이 맞다!

허나 왕이 왕으로 남기 원하며 지주가 지주가 남기로 원하고 부르주아가 부르주아로 남기 원한다면 노동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은 우리 본래의 사명에 운명을 맡기고 국내의 압제자는 물론 외부의 압제자들도 모두 몰아내야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자들, 특히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와 자본가 계급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야하고 사회주의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행동을 취해야한다!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행동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적의 대의에 대한 모든 자발적 지원을 거부해야한다!

아나키스트여! 우리들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옆으로 비켜 아나키스트라는 이름을 벗어던져라!

우리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전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현재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하는건가?, 우리의 대의를 위해 뭘 갈망해야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라인강에 있는 동지들은 협상국의 승리가 군국주의의 종식, 문명의 승리, 국제정의의 등대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국경 반대편에서 독일의 승리를 말하곤 한다.

나는 '베를린의 미친 개와' 빈의 '늪은 사형집행인'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있다. 그리고 나는 인도와 페르시아를 배신하고 짓밟는 영국의 외교관이나

러시아의 피에 미친 차르를 더이상 신뢰하지도 않는다. 보어 공화국이나 프랑스 부르주아국놈들은 모로코 원주민을 죽이는 거나 그만두고

벨기에 부르주아놈들은 콩고에서 손목축제 하는거나 그만두고와서 애기하라고 하고싶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저만 일을 하고있는 모든 국가와 자본가 계급이 과연 자국내의 노동자와 혁명군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할까?

내 생각에는 독일의 승리는 확실히 군국주의와 반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연합국의 승리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영국의 지배(즉 채찍과 자본주의의 지배), 영국에서의 강제징병 및 군사주의적 정신의 발전, 프랑스에서의 성직자 및 군주주의적 반동들의 발전을 의미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사실 이 전쟁은 어느 쪽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긴 전쟁, 인명가치의 막대한 손실, 양측의 피로는 일종의 평화를 설립하고서도 그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현재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준비할 뿐이다.

유일한 희망은 오직 혁명뿐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 혁명은 패배한 독일에서 일어나기 가장 쉬울 것이다.

내가 독일의 패배를 원한다면 오직 이 이유뿐일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자들(아나키스트든 레닌주의자든)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저들이 어떠한 감언이설로 우릴 속일지라도 우린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저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혁명이 계속되기 위해서 저들과의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1914년 11월 런던 아나키스트 신문 프리덤에 기재

<https://aitrus.info/node/5951>